

강화군,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3년 만에 개방 예정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방예정인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곳은 연간 약 50만 명이 찾는 강화군의 대표적인 명소로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부터 출입이 제한되었던 곳으로 군은 건강한 진달래 생육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1년에는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 진단용역을 실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월별 맞춤 관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개화율과 화색 등이 향상되어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진달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방문객이 고려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주변 전망데크를 조성하는 등, 관광객 맞이 등산로 정비를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데크계단 보수, 안전기둥 및 안전로프 등도 설치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분홍빛으로 물드는 장관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고려산을 찾고 있다”며 “건강한 진달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관광공사와 연계, 인구감소 지역 관광활성화 강화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대상지 공모 선정

강화군(군수 유천호)이「2023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사업」에 경인지역 대표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맞춰 강화군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함께 할 관내 관광사업체를 모집하고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지역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협력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에서 명예주민증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고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올해 공모사업에 23~24 한국관광100선 ‘고려도성여행’과 더불어 2023년 강소형 잠재관광지에 ‘갯곶돈대’가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적극적인 공모 사업을 통해 강화군의 관광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최벽하 기자

“공약사항과 현안사항 신속한 추진 당부” 강화군, 유천호 군수 3월 확대간부회의 개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 국·과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유천호 군수는 회의에 앞서 “민선8기 공약사항과 현안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대폭적인 간부인사를 단행한 만큼 업무에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 ▲봄 행사관련 추진계획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헬스케어 경로당 구축사업 추진 상황 보고 ▲대형산불 및 대형화재 예방 추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추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 ▲도로시설물 기능개선 사업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현안 및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확대간부회의

유천호 군수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상시체제로 산불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대형 화재 예방에 총력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에도 속도를 붙여 달라”고 말했다. ▣

강화군 CCTV공개, '유천호 군수 건강 문제 없다'



9일 기자회견



군이 공개한 유천호 군수 출근 모습이 담긴 CCTV

유천호 강화군수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0여일만에 병가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최근 강화의 한 지역 언론사에서는 <유천호 군수 2일 업무 복귀...공개된 장소에서 건강함 입증해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천호 군수가 양쪽에서 부축을 했음에도 걸음을 크게 내딛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혼자서는 걷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눈에 띄게 야윈 모습을 근거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강화군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일 유천호 강화군수의 출근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CCTV영상에서 유천호 군수는 부축 없이 혼자 힘으로 집무실로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강화군의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적절한 보도에 대해 반드시 사죄해야한다"며, "신상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한 해당 언론사와 거짓 제보를 한 제보자 B씨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한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악성 댓글을 단 게시자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에는 정정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여전히 저주에 가까운 도를 넘은 악성댓글이 달리고 있지만 해당 언론사는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강화군민 A씨는 "거짓·음해 기사로 분란을 만들어 그들이 무엇을 취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번기회에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지사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와 감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애국지사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국권회복을 위해 구국·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1919년 강화군 전역에서 이뤄진 만세운동을 기념함으로써 군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국지사 유족소개,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기념공연으로 개최된 강화군립합창단의 공연과 LED·국악 퍼포먼스팀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기념사에서 유천호군수는(부군수 대독) “조국 독립을 위한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지사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104년 전 강화군은 약 2만 4천여 명이 만세 운동에 참여한 대표적인 만세운동의 발상지로 강화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롭다”며, “3·1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아 더욱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약속드리며 군민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3.1절 기념행사



3.1절 기념행사

강화군, 국제성모병원·서도면 ‘1심 1주치 병원’ 협약 체결

강화군(군수 유천호) 서도면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과 ‘1심 1주치 병원’ 민·관 협력 도서지역 무료 진료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27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강화군은 서도면이 대상이다.

강화군은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35%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서도면의 경우 그 비율이 51%에 달해 노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 진료지역으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주문도에 방문 검진이 예정돼 있다. 진료과목은 재활의학과와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심장

내과 등으로 총100여명에 대해 사전 예약제로 추진한다. 과목별 기초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골·관절검사 등 검진을 실시하며, 진료 후 수술을 요할 시 군의 추천을 받아 협력 의료 기관에서 무료 수술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군 관계자는 "지역적 여건으로인해 병원 가기도 불편했던 도서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건강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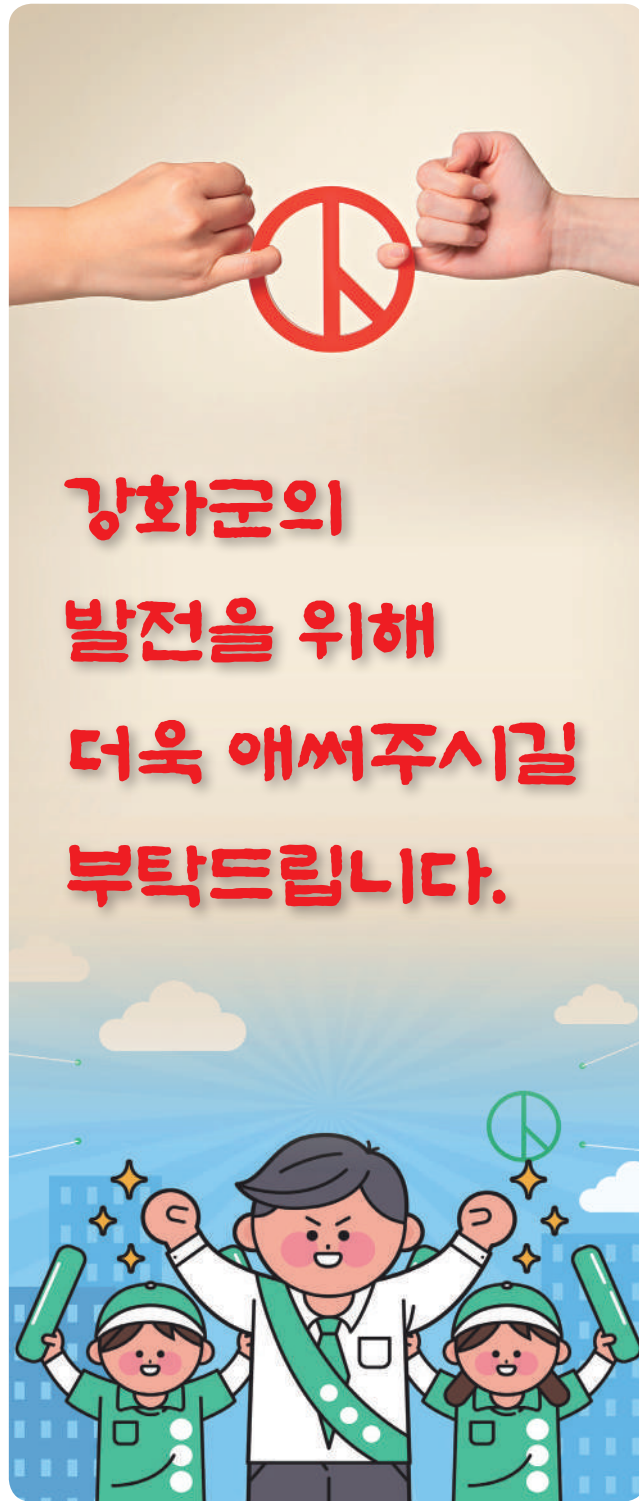


무료진료사업협약

조합장선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장
송정수(宋正洙) 66세
득표수(득표율) / 무투표 당선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화농업협동조합장
이한훈(李漢勳) 60세
득표수(득표율) 1,213(54.96%)



강화남부농업협동조합장
공중기(孔仲基) 55세
득표수(득표율) 1,401(4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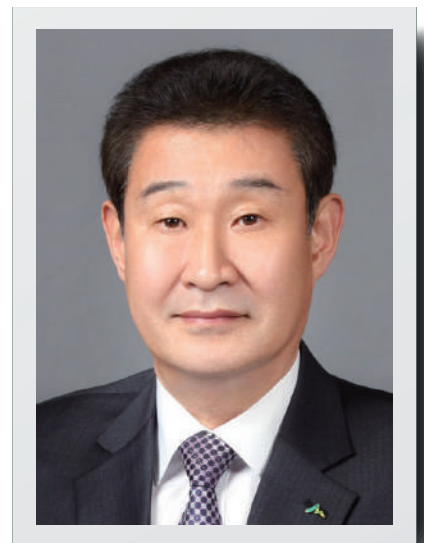
서강화농업협동조합장
황의환(黃義煥) 61세
득표수(득표율) 1,227(39.87%)



경인북부수산업협동조합장
이만식(李萬植) 63세
득표수(득표율) 527(49.25%)



강화인삼협동조합장
한홍열(韓弘烈) 59세
득표수(득표율) 91(38.07%)



강화군산림조합장
권영태(瞿寧台) 58세
득표수(득표율) 1,219(75.24%)

법고창신의 마음을 강화교육 비전으로 담겠습니다

강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성 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1966년생

·광주교육대학교 졸업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1989. 03.~ 2012. 02. 인천단봉초 외 6교 교사
·2012. 03.~ 2016. 08. 양사초 외 1교 교감
·2016. 09.~ 2020. 08. 강화초 공모교장
·2020. 09.~ 2023. 02. 길상초등학교 교장

1991년 9월 1일 마리산초등학교에서 시작한 강화에서의 삶이 어언 3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강화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으니 저에게 강화는 고향 담양에 이은 제2의 고향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친 아이들, 지역분들과의 소중한 인연, 그리고 제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자양분이 되어준 강화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강화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자 몇 년 전부터 강화의 교육사를 찾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교육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강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침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두에서 언급한 강화교육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3. 면지역 소규모 학교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2022년 강화는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해마다 학생들이 감소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교육지원청은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교육청 차원에서 도시지역 유학생 유치에 위한 '가족체류형 농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정책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인천 3대(강화, 섬, 에코) 에듀투어로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공동체 확대에 힘쓰는 등 외부학생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 역시 그간 MOU를 체결한 지역체험기관 및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지역교육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화두레교육과정 및 '푸른미래강화교육 온라인플랫폼'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작은 학교를 교육과정으로 연결하는 공동 프로젝트 학습 중심의 '강화 이음교육과정'을 통해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4. 학부모와 학생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해마다 학교와 교직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및 학생 여러분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걱정 어린 시선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미래지향적인 교육파트너로서 건설적인 관계가 되도록 따뜻한 눈으로 선생님들과 학교직원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백하 기자

1. 앞으로 강화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강화교육이 나가야 할 비전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밑거름으로 새로운 것을 도출할 수 있는 법고창신의 마음이야말로 강화교육의 중요한 미래비전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강화는 국난의 위기 속에서 근대교육의 선구지로서 새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구한말 교육으로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이동휘 선생이 설립한 보창학교, 일제의 갖은 압박을 이겨내고 민족교육을 지켜낸 합일초등학교, 1896년 조선정부에 의해 전국 4번째 지방공립소학교로 세워진 강화초등학교 등은 강화가 우리 교육사에 큰 축을 이루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의 미래비전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여 년 전 강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 옛 것을 본 삼아 새 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 2023년도 강화군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장님의 역점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화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 교수학습 여건이 도시의 과밀학급에 비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낡고 비좁은 학교 건물로 인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행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그린 스마트 사업과 공간혁신사업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또한, 2023년 인천교육의 역점사업인 '기초학력·학습역량 강화'를 실행하기 위해 기초학습클리닉센터, 에듀테크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학교 중심의 독서교육 강화, 탐구 체험 중심의 수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강화교육사연구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는 강화교육의 역사 연구 및 초,중,고 교육 연계를 정책적으로 뒷받

法古創新
과거를 밑거름으로 새로운 것을 도출

그린 스마트사업 / 공간혁신사업
기초학력·학습역량 강화
강화교육의 역사 연구 및 초,중,고 교육 연계


고천2지구, 오상1지구 1,389필지 강화군,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주민 재산권보호를 위한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에 나섰다. 올해 지적재조사지구는 고천2지구(고천1리 일원) 690필지, 888,432.5㎡와 오상1지구(오상3리 일원) 699필지, 709,251.2㎡가 대상이다.

군은 사업의 조기완료를 목표로 2022년 11월 실시계획수립과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동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지난 2월 28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되어 3월 지적재조사 측량에 착수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유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수시로 대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경계분쟁이 없는 내 고장, 풍요로운 강화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민 알 권리 및 군의 재정현황 공개 강화군, 2023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홈페이지 공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군의 재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정공시 내용에 의하면, 일반회계 기준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789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5,49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6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가 2,757억원(43.1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조금 2,637억원(41.29%), 지방세 521억원(8.1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비중이 1,725억원(27.02%)으로 가장 높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999억원(15.6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92억원(9.27%) 등이 뒤를 이었다. 강화군의 올해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7,052억원으로 2022년도 6,319억원에 비해 733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2.35%로 2021년 14.19%, 2022년 12.51%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05%로 2021년 54.49%, 2022년 56.76%로 비율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재정공시를 통해 군민들이 우리 강화군의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번호	제목	일부	작성과	재정공시	작성일	조회수
67	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동행부세, 우발부세 등)	공	기획예산과	공통	2023.02.28	10
66	2023회계연도 강화군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공	기획예산과	공통	2023.02.28	20

강화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여권민원 창구'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평일 근무시간에 군청을 방문하기 힘든 군민을 위해 “야간 여권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간 창구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여권 발급신청과 교부 업무를 한다. 단,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방문 시 신분증(접수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여권 등을 준비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근무시간에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자동차세 3월 연납하고 5.25%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5.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과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 ▶ 3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또한, 자동차세는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1599-7200, 1661-7200) 향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3)로 문의하면 된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많은 주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

강화군, 들개 유기견 번식예방, 중성화수술비 지원



유기견

업이다.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 월령 이상의 개가 대상이다.

올해 사업량은 250두로 신청자가 많을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주인이 사육권을 데리고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중성화 수술을 받으면 된다.

사업 참여시 반드시 사육견에 식별 가능한 내장형 칩을 삽입하고 동물 등록을 실시해야한다. 중성화 수술과 동물 등록 비용의 10%와 민원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무분별한 들개 번식 예방을 위한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들개, 유기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사업은 실외 사육되는 개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들개 발생 및 유기견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

신청안내 ▶ 오는 2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방문

강화군, 광견병 예방접종 ‘무료’ 실시



광견병 예방접종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광견병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접종기간은 오는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이다. 기간 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공수의사가 지정된 날짜에 읍·면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접종도 추진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거나 마을별 지정된 날짜와 장소를 확인 후 접종하면 된다. 다만, 방문접종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마개를 착용한 경우에만 실시할 예정이다.

광견병은 사람이 감염된 동물에게 물렸을 때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도 높아,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군에서는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전액 무료로 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한다.

유천호 군수는 “최근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며, 광견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접종시켜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광견병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동화 시설 구축으로 노동력·경영비 DOWN, 소득 UP 강화군, 첨단농업 시설 지원으로 농업혁신 주도



농업분야에서 시설원예는 부가가치가 높고, 대외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국내시장의 경우에도 2020년 2억 4,00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4억 9,000만 달러로 성장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시설의 규모화, 자동화, 정밀농업 등이 농업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은 2021년 148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220억 달러 규모로 9.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의 미래... 청년들을 귀농으로 이끄는 스마트 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농자재 원재료값 상승, 높은 인건비, 농산물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인들의 걱정과 우려는 계속되다. 희망적인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대외 경쟁력이 있는 작목 발굴, 생산비·노동력 절감, 품질 향상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 스마트농업 추진은 필연적이다.

인구 약 70,000명 중 65세 이상이 약 35%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강화군도 예외없이 노동력의 고령화 및 부족 현상으로 농업 일선에서 해결해야 할 농업과제 중 하나이다. 희망적인 것은 최근 들어 위기의 농촌에서 기회를 찾고자 도시에서 강화로 귀농하는 젊은 청년농이 점차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ICT(정보통신기술)융복합 사업 지원

미래 디지털농업 육성을 위해 국비사업인 ICT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원예시설 현대화 ▲에너지 절감 ▲ICT 시설보급 등의 시설을 지원한다. 온실 내외부의 온도, 습도, 일사량, 토양 수분 등 센서를 통한 정밀한 환경 분석과 측량, 난방 등 온실의 자동제어 시스템을 연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물의 적정 생육환경 조성으로 노동력 절감, 농산물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연동하우스를 구축하고 ICT융복합 시설을 투입한 토마토 재배농가 차순만씨는 “올해 농자재 가격 상승과 면세유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시설원예 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연동하우스와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으로 평당 소득이 단동하우스 운영보다도 20~30% 정도 증대되고, 작업효율과 에너지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면서 “특히 ICT 융복합 센서 및 제어 장비 설치 후 오랜만에 부부가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다”며 스마트농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시설원예 기반 구축을 위한 총력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사계절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2023년 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약 16ha 규모로 시설원예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토마토, 오이 등 소득작목을 중심으로 지원한 연동하우스사업은 시설원예분야 베테랑 전문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매년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연동하우스는 기존 비닐하우스에 비해 이용면적이 넓고 방열 면적과 바람의 압력을 줄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은 2배 길어지고, 수확량은 3배가 많아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농업용 난방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새롭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난방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농업용 전기난방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설재배 농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 시설원예의 규모화, 자동화시스템 등 스마트팜 보급으로 다양한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지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교육과 지원사업으로 희망적인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민선8기 공약 실천위해, 2026년까지 만3~5세로 확대 예정 인천시, 어린이집 만5세아 현장학습 등 필요경비 전액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어려운 경제난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들을 상반기에는 동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민생의 한 축으로서 공공요금 안정을 통해 조속한 경제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유시장의 의지로도 임해지며, 인근 타 시·도와 달리 인천시에서는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인천시 재정에 부담은 되지만 시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전부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동결하기로 통 큰 결정을 한 것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내버스는 189억 원, 도시철도는 50억원 등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했던 하수도 요금도 상반기 중에는 감면하기로 해,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한 시의 시민 부담 완화 의지에 더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로 연기된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교통요금도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하여 균형있게 맞춰가겠다는 방침이다 - 권주형 기자

인천지역 사회복지·유관 기관 참여 가능 / 3월 10일까지 11개 기관 모집 인천시사서원, 지역주도형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모집

인천시사서원이 지역주도형 돌봄서비스 제공에 함께 할 사회복지·유관 기관을 찾는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내달 10일까지 지역주도형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에 참여할 사회복지·유관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기존 돌봄 정책의 빈틈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더 나아가 제도화되지 않은 돌봄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사회복지·유관 기관 11곳이다.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기관 및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은 지역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돌봄·요양, 일상지원, 건강지원, 안전, 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추후 기관별로 모집하며, 필요시 자체 대상자 외 타기관 대상자에게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기관 선정 이후 각 기관에서 사업을 맡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 참여 기관 교류를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 여기에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올해 말 사업보고회로 마무리한다.

지역주도형 돌봄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모집

- 신청기간** 2023. 2. 21.(화)~3. 10.(금) 18:00
- 신청자격**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기관 및 단체를 포함함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inwf@incheon.pass.or.kr)
- 사업비** 기관별 3,000,000원(3백만원)~ 10,000,000원(1천만원)

사업대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중장년, 자립준비청년, 노인 등) ◦ 노인부부, 한부모, 장애인 ◦ 기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사업구분	
	돌봄·요양 보호·방문도우미·요양·가사지원 등 돌봄 사업 등
	일상지원 이동지원, 영양도시락·밀키트 제공, 방문이미용 등 일상생활지원 사업 등
	건강지원 신체·심리·정서적 지지 및 건강지원 사업 등
	안 전 응급,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주거지원 간단 집수리, 쓰레기 청소, 수납정리 등 주거 위생·환경개선 사업 등
	기 타 제시된 분야의 돌봄서비스와 관련 있는 분야 가능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조
incheon.pass.or.kr

문의처 032.721.7624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incheon.pass.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inwf@incheon.pass.or.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 032) 721-7624

강화군장학회, 2023년 강화군 장학금 전달식 개최

강화군장학회(이사장 이상설)는 11일 지역 고등학생 및 대학생 17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강화군장학회 주관으로 명진부페에서 이상설 이사장,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박용철 인천광역시의원, 김성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강화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장학회는 2003년 설립된 이래 총 2,045명의 학생들에게 17억 5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강화군은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을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장학사업이 가능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3억원을 별도로 출연하기로 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장학회는 학업성적 우수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170명(고등학생 70명,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 대학생에게는 150만원을 전달했다. 선발된 대학생 중 일정 성적 유지자에게는 하반기 1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장학금 전달식

이상설 이사장은 “오늘 전달된 장학금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동기 부여의 원천이 됐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지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노인회 선원면 분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및 이재민 돕기 성금 기탁

강화군 노인회 선원면 분회(회장 김선하)는 지난달 28일, 대지진으로 참사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선원면 노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의를 모아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나라에 온정을 전했다.

이날 김선하 분회장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노인회 선원면 분회 지진피해성금 기탁

불은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영농폐비닐 수거

강화군 불은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최진남)는 지난 9일 관내 경작지와 가축시설 인근의 영농폐비닐을 집중 수거했다.

이날 최진남 회장은 “불법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을 수거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농번기에는 폐비닐 무단투기가 눈에 띄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염명희 불은면장은 “마을 환경을 위해 힘써주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주민들도 영농폐비닐 관리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불은면 새마을지도자 폐비닐 수거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명예로운 이달의 봉사왕” 시상

강화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8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봉사자 10명에 대하여 ‘명예로운 이달의 봉사왕’ 시상식을 개최했다.

‘명예로운 이달의 봉사왕’은 매 분기마다 월별 최다 활동 횟수와 시간을 기록한 봉사자를 각각 선정하여 그간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이다. 지난 해 부터는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성인분야와 청소년분야를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시상에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최다 활동자에 대한 시상을 했다. 수상자는 성인분야 ▲김경환(모범운전자회) ▲전종광(개인봉사자) ▲윤용훈(개인봉사자) ▲김용우(강화읍 자원봉사 상담가) ▲김갑식(개인봉사자) ▲안규희(강화문화협회) 이상 6명, 청소년 분야 ▲윤현선(개인봉사자) ▲김다연(개인봉사자) ▲배규란(개인봉사자) ▲전지성(개인봉사자) 이상 4명으로 총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의 부상으로 인천시 농촌 융복합 6차 산업 제품인 홍삼 절편과 블랙커리를 전달해 지역 특산물을 홍보했다. 관내 제조업체 및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착한소비를 지향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달의 봉사왕 시상식

인정보상으로써 그 깊이를 더했다.

한편, 센터는 찾아가는 토탈 자원봉사의 날, 이불세탁, 방역 등 생활 밀착형 찾아가는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안녕 캠페인 등 군민 참여형 상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되는 이웃 없는 강화군 실현을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2023년 지역인재풀[POOL] 구축 운영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센터장 윤정혁)에서는 강화군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한 지역인재풀에 등재할 강사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강화군민을 비롯하여 강화군 발전에 관심을 가진 자로 ▲취·창업 분야 강의 경력자 및 컨설턴트 ▲기업 임원 또는 관련

분야(인사총무/마케팅/영업/IT/유통/상품기획 등)의 전문성을 가진 경력자 및 현직자로 연중 모집한다.

윤정혁 센터장은 “강화군 곳곳에도 훌륭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다. 취·창업 관련 지식을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이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2023년 지역인재풀(POOL) 모집

모집분야 취·창업강의경력자 및 컨설턴트
기업임원 또는 실무경험자/담당자 등

모집기간 2023. 2. ~ 연중모집

모집인원 00명

모집 방법 및 안내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032)934-3088(창업),
032)934-3098(일자리)
<http://www.ganghwajob.kr>



기고

이경수

'문화재' 이야기



강화 고려궁지(사적)

국보 1호 남대문, 보물 1호 동대문, 사적 1호 포석정. 외우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참성단이 사적 136호인 것도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고려궁지가 사적 몇 호였더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문화재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됐거든요.

그때 문화재청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였다."

이렇게 보면 보물 30호가 보물 70호보다 더 가치 있는 문화재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어서, 지정번호를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국보 1호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문화재 지정번호를 없애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남대문(공식 호칭은 '서울 숭례문')이 우리나라 국보 1호 자격이 있는가,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제, 국보 1호를 무엇무엇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화재의 공식 이름을 확인하려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검색해보면 국보, 보물, 사적, 이런 표기만 있고 지정번호는 모두 삭제됐습니다. '고려궁지'를 검색하면 예전에는 '사적 133호 고려궁지'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사적 강화 고려궁지'라고 나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간단해져서 좋습니다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문화재가 여럿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동명의 문화재는 그동안 지정번호로 구분했었는데, 이제는 구분이 곤란해진 것이죠.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국보 78호와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함께 모셔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데 지정번호를 삭제하고 보니 어찌 구분해서 말해야 할지 어려워진 것입니다.

SBS 보도(2022.09.11.)에 따르면,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된 국보가 7건입니다. 보물은 79건이나 됩니다. 강화 전등사에 있는 보물 '묘법연화경 목판'! 그런데 보물로 지정된 똑같은 이름의 '묘법연화경 목판'이 충남 개심사와 전남 대흥사에도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이름 같은 지정문화재는 명칭 뒤에 괄호를 넣어 지정연도를 표기해서 구분하고 있더군요. 같은 해에 지정된 것은 2023-1, 2023-2, 이런 식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등사 묘법연화경 목판은 '묘법연화경 목판(2016)', 대흥사 것은 '묘법연화경 목판(2017-1)', 개심사 것은 '묘법연화경 목판(2017-2)'.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보물)

지자체마다 홈페이지에 해당 지역의 문화재 현황을 씁니다. 문화재 지정번호를 정부가 삭제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으니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도 번호가 사라졌겠죠? 강화군청 홈페이지로 가봅니다. 보물 10호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물 11-8호 사인비구 제작 동종-강화 동종, 보물 161호 강화 정수사 법당... 살아있네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강화 인근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김포, 고양, 파주 모두 강화처럼 문화재 지정번호를 지우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아마도 삭제 후의 불편함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재'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 한자로 쓰면 文化財입니다. 재(財)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재산(財産), 재정(財政) 식으로 쓰지요. 결국 '재(財)'는 돈을 의미합니다. 선조들이 남겨준 유물과 유적을 돈의 가치로 따진다? 좀 어색합니다. 무형문화재는 사실상 해당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지정한 것입니다. 사람도 문화재로 불리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니 '문화재'라는 호칭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일찍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대신 '문화유산'으로 쓰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일에 문화재청이 '2023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한다."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분류 체계도 국제기준에 맞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MBC 뉴스, 2023.02.02.) 앞으로 '문화재'라는 말이 사라지고 대신 '문화유산'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문화재청이라는 기관명도 바뀌게 되겠지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나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으로 분류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보 350건, 보물 2,293건, 사적 521건입니다. 사적은 한자로 史蹟이라고 씁니다. 역사의 흔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사 시대 유적,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제단·고인돌·고분·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중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사적으로 지정됩니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입니다. 그러면 강화군수에게는 문화재 지정 권한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나 인천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높은 강화의 문화재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수사의 함허대사 부도나 교동 봉수대 등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존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지정한 향토유적, 그런 만큼 더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한편, 2011년에 문화재 작명 원칙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공식 이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재의 '고유한 명칭'에 지역명을 덧붙여 적어 문화재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 등과 궁궐, 종묘와 사직단 등 국가적 상징성을 갖는 문화재는 지역명을 함께 적지 않기로 했다."(문화재청 보도자료, 2011.07.28.)



전등사 철종(보물)

경복궁은 그대로 경복궁, 종묘는 그대로 종묘이지만, '한양도성'은 '서울 한양도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재 이름 앞에 지명을 붙이는 원칙이 선 것입니다. 사적 고려궁지는 '강화 고려궁지'가 공식 이름이 되었습니다. 삼랑성은 당연히 '강화 삼랑성'이 됐고요.

물론 강화 주민들이야, '강화 고려궁지'라고 부를 이유가 없지요. 그래도 교육 현장에서는 지명을 붙인다는 원칙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등사 철종'도 보물입니다. 당연히 '강화 전등사 철종'이 돼야 했는데 어인 일인지 지금도 공식 명칭이 '전등사 철종'입니다. 전등사 철종은 이름 그대로 철로 만든 종입니다. 높이가 164cm로 강화역사박물관에 있는 강화동종(198cm)보다 30cm 넘게 작습니다.

종은 대개 동으로 제작하는데 철로 제작했으니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등사 철종'은 우리나라 종이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종입니다. 종 표면에 새겨진 글에 따르면, 송나라 때인 1097년에 중국 백암산 승명사에서 제작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로 왔고 광복 이후에 전등사로 옮겨졌고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중국산 철제종이 대한민국의 보물?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물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지정 당시 '~지(址)'로 되어 있는 문화재는 복원 정도에 따라 '지(址)'를 삭제하기로 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址'는 '터'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터만 있는 문화재를 '~지'로 이름했는데 그 터에 해당 건물이 복원되면 '지' 자를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대산 사고가 복원됐기에 사적 '오대산사고지'를 '평창 오대산사고'로 이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인천시기념물로 지정된 '강화 정족산사고지' 역시 '강화 정족산사고'로 수정해야 옳습니다. 사고가 번듯하게 섰는데, 여전히 사고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문화재 명칭에 띄어쓰기 원칙도 적용됐습니다. 강화에서 출토된 것으로 여겨지는 국보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이제 원칙적으로 '청자상감운학문 매병'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재 고유 명칭까지 띄어쓰기해야 하나, 살짝 의문이 듭니다.

정리하면,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부르기로 한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문화재 명칭에 지역명을 넣는다, 해당 건물이 복원되면 명칭에서 '지'를 뺀다, 원칙적으로 문화재 명칭을 띄어쓰기 해서 표기한다. 이렇게 됩니다.

강화의 지정문화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37건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35건,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82건, 강화군 지정문화재 20건입니다. 관심이 가는 독자분께서는 강화군청 홈페이지(문화관광→문화재/역사→문화재 현황)에 들어가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사진출처 문화재청)

기고

인공지능과 인간



김학준

인천언론인클럽 대의원

요즘 세간의 화두는 단연 챗GPT다. 이를 잘 모르면 젊은이들과의 대화에 가급적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다. 챗GPT는 미국 인공지능 기업인 OPEN AI가 지난해 12월 1일 출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AI)이다. 세상에 나온지 고작 5일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두 달이 지나선 1억명 이상 이용하고 있다. 대화의 주제는 지식정보 전달은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답변 및 기술적 문제의 해결방안 등 매우 다양하다. 논문 작성, 번역, 노래 작사·작곡, 코딩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 수행까지 가능해 기존 인공지능과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 대화의 숨은 맥락을 이해하거나 이전의 질문 내용이나 대화까지 기억해 답변에 활용한다.

하지만 때로는 질문을 거부하는,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한다. 여기에는 차별적·공격적이거나 부적절한 질문, 다시 말해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동성애 혐오적 질문 등이 포함된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가 구설수에 오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미뤄볼 때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마저 든다.

너무 똑똑하다보니 논란도 많다. 미국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챗GPT가 작성한 글을 숙제로 제출하는 일이 속출했고, 이에 뉴욕과 시애틀의 공립학교에서는 교내 와이파이망과 컴퓨터를 통한 챗GPT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일부 대학에서 챗GPT를 이용한 에세이를 제출한 사례까지 적발되자 대학 측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는 구술시험 및 그룹평가를 늘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표절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인공지능 만능 시대와는 아주 다른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EBS가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에서는 중국 노자와 장자의 사상, 그리스 소크라테스·플라톤의 철학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이 강좌는 복고풍 학자가 아닌, 현재 국제·국내적으로 명망이 높은 교수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들은 과거의 사상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나 미래에도 효용이 있다며 현대 인문학과의 접목을 시도한다. 위대한 생각은 시공을 초월하며, 첨단문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라 해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최고의 경쟁력은 ‘인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문학을 강조한다.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이다. 쉽게 말해 인간학이다.

이러다 보니 치열한 경쟁사회에서의 갈등, 첨단문명이 지니는 모순과 한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극복하려면 선인들의 뛰어난 사고에 기반한 자아 성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변한다. 한 예로 노자가 ‘도덕경’에서 한 말을 제시했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화근이다. 만족하고 물러설 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고 위태롭지 않다.” 세계의 독재자들과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노자가 생전 당시 귀족, 가진자들에게 한 쓴소리도 있다. “남을 위함으로써 내

가 더욱 있게 되고, 남에게 줌으로써 내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오늘날 재벌들이 들으면 뜨끔할 것이다.

교육학 대가로 인문학 재능기부를 펼치는 권건일 교수는 “인문학이란 인간답게 사는 방법에 대한 해법이자, 문학·역사·철학이 어우러지는 실천적 학문으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위기, 튀르키예 지진 등 혼돈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과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의 역사에 담긴 생각의 흔적을 더듬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강조했다.

첨단문명을 이끄는 사람들도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사람이 스스로 인간다움을 잃지 않을 때 기술도 인간을 위해 발전한다는 것이다. 미국 애플사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젊은이들과 대화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인간의 삶속에 스며들지 않는 한 존재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히피문화, 선불교, 동양철학 등을 접하면서 직관력과 통찰력을 키워나갔고, 인문과 공학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적을 이뤄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저서에서 인공지능의 한계를 설파했다. 첨단문명의 유산인 공동체 갈등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 자본주의에 갇든 모순 등을 이겨내기 위해선 인간성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새겨들어야 할 시점이다. ▣



강화군 행복센터, 2023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강

강화군 행복센터(센터장 강종욱)는 지난 6일 부터 2023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3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16주간 진행되며, 총 84개 과목에 1,375명의 수강생이 참여한다.

2022년 3월에 개관해 올해 개관 1주년을 맞는 행복센터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여가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수강생 모집에는 총 2,684명이 지원해 평균 2:1 넘는 경쟁률을 보여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방문 접수 외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여 직장인 및 외각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 편의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행복센터 프로그램 개강

강종욱 센터장은 “정원의 2배가 넘는 높은 신청률은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높아진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자기개발 및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자격증, 어학, 미술, 공예, 의생활, 식음료, 악기, 어린이 교육, 건강 등 84개 과정이 개설됐다. 특히 직장인들의 자기개발 수요 증가에 따라 야간 프로그램 20개 과정, 어린이 교육 7개 과정으로 확대 증설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행복센터(☎ 032-934-3901~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행복센터 프로그램 개강

13일간 10만보 걷기, 선착순 400명에게 선물증정 강화군, 주민건강 프로젝트! 워크온과 함께 신나는 걷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걷기 운동을 통한 주민건강 프로젝트 워크온 챌리지 1탄 “봄이왔나봄”을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일상 속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인천강화 걷기 커뮤니티)』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현재 2,958명으로 일정기간 목표 걸음수를 정해 목표에 달성 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챌리지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첫 챌리지는 이달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10만보 걷기로 시작한다. 참여자중 목표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는 고급칫솔 1박스(15개)를 증정한다. 걷기는 가족과의 화목, 동료와의 친목도 다지며 칫솔(1box)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챌리지 참여방법은 워크온 앱을 설치 후, 강화군 커뮤니티 「인천강화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참여 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생활 속 걷기로 만성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워크온 챌리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문의 ▶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팀 ☎ 032) 930-4075

봄이왔나봄
풍요로운강화와 건강하게 걷기

봄이왔나봄

제1탄 워크온 챌리지

목표걸음에 달성하면 기념품을 드려요!

..... 걸기기간 목표걸음수

03.15.(수)~03.27.(월) 13일간
총 100,000보
(1일 8,000보 한정)

챌리지 참여하러가기

강화군 보건소 032)930-4075

산촌



- 닭누룽지백숙
- 오리누룽지백숙
- 생오리구이
- 오리주물럭
- 오리탕
- 닭볶음탕
- 삼겹살
- 항정살

대표 박상열
 M. 010-3784-8448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길 12

60석 완비 / 차량운행 **예약번호** 032) 933-0051

더 나은 인쇄 · 광고로 보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삼성인쇄광고기획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